

지역 소식통



김제시, 초·중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김제시에서는 미래세대인 관내 20개교 1,000여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회교과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중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꾸준한 홍보로 시민 인지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편리성이 널리 인식되지 못해 사용이 불편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인 초·중학생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신마산 민원소통과장은 학교방문을 통하여 사용법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해도 증진과 내실있는 홍보·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등 시설물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지역자활센터 소양교육

김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복례)는 18일 길보른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새마을외 6개 사업단체 150여명의 자활참여자들을 배치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전체 소양교육은 자활근로 참여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키우고 창의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통해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김제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내태주 시인의 인문학 강의, 전·월세의 이해 등 법률 상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김제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자활자립에 성공한 자활근로 선배를 강사로 참여시켜 그들의 성공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자활자립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시내버스 일부 노선 조정

간선노선 520번·521번 신설 등... 24일부터 본격 시행

완주군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 2월 20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마을회의, 민원건의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 일부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노선개편 일부조정안은 크게 △노선 조정 △시간표 수정 △버스정류장 신설로 구분된다.

먼저 노선 조정 사항으로는 시간간격으로 인해 우회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간선노선(520번·521번)을 신설했다.

신설된 간선노선으로는 봉동리마을에서 용진대영아파트, 완주·덕천아파트를 경유해 전주대를 운행하는 520번 노선과 와리, 삼례천 제방마을, 봉동을 거쳐 전주대를 운행하는 521번 노선이다.

간선노선 신설로 인해 각 마을들의 시내버스 우회거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노선개편으로 불합리하게 운행되는 노선에 대해 재조정을 단행했다.

이서지역 혁신도시 에코리 2단지를 단독으로 경유하는 22번 노선을 에코리단지로 통합시켜 버스이용객의 불편을 줄였다.



봉동코아루를 운행하는 500번대 장거리 노선에 대해 완주군청을 미경유시켜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이밖에 이서지역 전북대 출발노선을 변경하는 한편, 54번 노선 종점을 신봉마을에서 완주군청으로 연장했다.

두 번째로 시간표 수정사항은 535번(고신대리-전주대학교) 배차간격을 25분에서 22분으로 3분 단축시켜, 출퇴근 시간대 고산발 버스민간 문제가 해소되도록 했다.

또한 32번(전주공고), 20번대 이서지역 차량의 중간시간표를 수정해 이전 탑승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승·하차 시간을 맞추고 운

전자의 식사시간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봉동 산업단지 내의 데크항공사거리, 이서면의 기전대 재할승마장 원이문리 버스승강장 등을 신설해 완주군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군은 앞으로도 향후 하하마을, 모악호수마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 재조정사항에 대해 노선안내책자를 만들어 각읍면에 배부토록 하는 한편, 주요 환승정거장 및 변경지점에 교통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버스정류장에 노선안내도를 설치해 군민들의 버스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봄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

과수·채소 등 인력 많이 필요한 발농업 중심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여 적기영농을 도모하고자 기계화율(수도작80%, 밭농사56%)이 낮은 과수 채소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발농업을 중심으로 범 시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농작업에는 2만7,816ha에 39만명의 인력이 소요되고, 농기계 활용과 농가 자체인력으로 충당되는 부분 제외하면 2,100ha에 2만8,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5~6월(2개월)동안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적기 영농실천은 물

론 농업과 농촌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적과 및 봉지씌우기, 마늘·양파 수확, 밭작물 지주세우기 벼 모내기 지원 등 농촌 노임 상승원인이 되고 있는 두달 동안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김제시와 농협김제시지부, 등 공공기관이 일손돕기를 집중 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군부대,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언론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김제시(농업정책과), 읍면동, 농협김제시지부에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하여 1차추진운동, 농촌체험, 농농교류 등과 연계한 일손돕기를 적극 앞선한다.

일손돕기 우선 지원 대상농가는 독거, 장애인농가 등 기초생활보장대상농가, 고령농 부녀자, 질병과 상해로 장기입원 등 농작업을 할 수 없거나 과수 채소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농가 등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인력부족이 농촌노임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는 등 농번기만 되면 농촌의 근심이 깊어진다"며,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급 대상자 선발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올해부터 김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김제시의 위상을 높인 체육꿈나무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2017년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원'을 시행한다.

장학재단은 22일 김제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www.gimjeilove.kr)에 '2017년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원' 공고문을 게시하고,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김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분야 재학 학생 중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3위 수상자이며, 신청접수를 받아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격려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한다. 격려금 지급규모는 초등학교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며,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격려금 신청은 격려금 지원 신청서, 수상실적 증빙자료, 재학생명서 등을 구비해 김제사랑장학재단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 사무국(540-3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종현 심사위원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꿈을 가지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의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을 통해 김제시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실 경작 심사위원회 개최

김제시 성덕면은 18일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2017년 쌀 및 밭농업 직불금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 경작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쌀 및 밭 직불제 신청인에 대한 농업 종사여부를 확인·검증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장 및 농업관련 단체와 지역대표 농업인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2017년 쌀 직불제 신청자 418명 4,497필지 1,255ha와 밭 직불제 380명 2,027필지 522ha에 대한 실 경작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

라 5월 24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6월 15일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유권 변동 및 면적 증감, 사망 등에 의한 승계 사항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정 직불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신청대상농가에 대하여 신청자의 논(밭)농업종사여부 및 실경작 여부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컨설팅

완주군은 삼례문화예술촌이 지난 4월 '2017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1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날 휴플래너(주)와 건국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컨설팅을 통해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마을을 둘러보고 현장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앞으로 장애인 주차시설 정비, 안전등선 확보,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장애인 영유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오감민족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어, 아주 특별한 열린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장애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됐던 2017 봄 여행주간에 관광객수가 지난해보다 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적인 관광병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